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299>

JCCT 2024-5-35

##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 분석에 따른 북한의 핵태세 연구

### A Study on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Based on India and Pakistan Case Analysis

조용성

Cho YongSung

**요약** 미국과 소련이 맞서는 제1차 핵시대를 넘어 지금은 크고 작은 국가들로 핵 사용 결정권자가 다양화된 제2차 핵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으로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격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인도와 같이 수세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 북한, 핵무기, 핵태세, 인도, 파키스탄

**Abstract** Beyond the first nuclear age, which pitte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gainst each other, we are now in the second nuclear age, in which the decision-makers of nuclear weapons are diversified among countries large and small. India and Pakistan, two such countries, are antagonistic toward each other and possess nuclear weapons, but their nuclear posture and nuclear strategies are different. The examples of these two countries can provide clues to the future nuclear posture of North Korea, which faces South Korea. In particular, Pakistan's chosen posture of pre-emptive deterrence is a highly offensive nuclear posture that threaten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 adversary to deter aggression. This is an option that can be accomplished even with a small nuclear arsenal that can be used as a first strike, so it seems to be the optimal posture for a nuclear-powered Pakistan to choose in response to an Indian threat. North Korea, which is outgunn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to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preemptively like Pakistan. However, it is expected to be defensive and quite conservative, like India, until it actually uses them to maintain its regime.

**Key words** : North Korea, Nuclear weapons, Nuclear readiness, India, Pakistan

#### 1. 서론

한반도는 특수한 핵 위협과 대면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이전에도 핵무기와 대면하며 지내온 경험이 있

기 때문에 그로부터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의 시작점은 그곳에 있다. '1차 핵시대'라 불리는 냉전기 국제관계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이 어떻게 작

\*정회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2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12, 2024 / Revised: April 7,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1020ys@naver.com

Dept. of North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Dongguk Univ, Korea

동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미국과 소련의 핵능력이 경쟁 관계에 들어서면서 한쪽이 공격하면 상대방의 반격으로 선제공격자와 2차 공격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는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상호억제로 부정적인 우려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2차 핵 시대'는 달랐다. 미소 핵 양강 체제인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 다양하고 독립적인 핵 무기 의사 결정주체들이 등장했다. 각 주체들이 가진 힘의 균형도 제 각기 달라서 핵강대국과 핵약소국이 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경쟁하는 비대칭 구도가 됐다. 1차 핵시대의 '양강 억제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핵시대의 특징은 예측하기 더 어려워진 점을 들 수 있다. 어느나라든 핵 무기를 한번 사용하면 연쇄작용으로 모두의 공멸을 내다보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다수의 핵 의사결정 주체가 가진 저마다의 사정 때문에 양강구도 때보다 핵을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핵전략의 한계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서 '핵전략'은 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핵무기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교리와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 사전에 따르면 "핵무기가 갖는 초과피력과 방사능의 위력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해서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한다. 또 다른 개념으로 '핵 한계선'이란 한 국가가 어떠한 인내 수준에 이르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고 믿을만한 인식상의 한계선이다. 다시말해 한 국가를 향해 상대 국가가 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믿게 하는 '데드라인'을 말한다. 핵 한계선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위협하는 능력과 그에 대한 결의 등을 보여줘야 한다. 또 금기선을 넘으면 핵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객관적 핵한계선'은 위협감수와 완충기제 능력까지 감안돼 결정된다. 위기를 맞은 국가가 핵무기 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와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완충기제가 있는지 여부가 핵 한계선 수준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주관적 핵 한계선을 생각할 수 있다. 보복적인 억제는 억제자와 피억제자가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전체를 갖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쪽이 있는 핵 게임에서는 억제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적대국이 비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측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회피하

려 한다. 여기에 '주관적 핵한계선'이라는 개념이 억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여기에 주목 받는 핵 태세 연구는 비핀 나랑(Vipin Narang)을 꼽을 수 있다. 비핀 나랑은 지역 핵 국가들이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 촉매(catalytic), 비대칭 확산(asymmetrical escalation), 확증 보복(assured retaliation) 등 세 종류 가운데 선택한다고 보았다.##### [2] 북한은 제2 핵시대에 세 번째 주요 도전이었다. 북한의 핵전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은 자타공인 사실이다. 2006년 10월 첫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실험을 거듭하면서 지난 2017년 9월에 여섯 번째 핵 실험에서 50~60Kton의 폭발력 수준을 가시화하며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됐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관점에서 시작해서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핵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해 전망해본다. NPT 체제 밖에서 핵 무장을 현실화한 사례를 분석한다. 제2차 핵시대를 맞아 '지역 핵 무장' 국가들이 핵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세로 사용할 것인지에 살펴본다. 비핀 나랑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에 논문의 구성으로 첫 장인 서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어 2장에서 인도의 핵 개발 경위와 핵 태세를, 3장에서 파키스탄의 핵 개발 경위와 핵 태세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앞선 두 국가를 통해 제2핵시대의 후발주자인 북한의 상황을 토대로 핵 태세 유형을 전망한다. 결론인 5장에서는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 II. 인도의 핵전략

제2차 핵시대로 꼽히는 신흥 핵무기 보유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을 꼽을 수 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 나라를 살펴본다. 인도는 선제 공격보다 보복을 택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1격'과 '2격'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 억제전략에서부터 논의되었던 개념이다. 1격은 전략 핵무기를 통해 상대방의 핵전력이나 대도시, 주요 산업시설 등을 선제 공격하는 개념이고, 2격은 선제 공격을 받은 국가가 상대방의 1격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핵무기로 반격하는 것이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각자 보유한 강력

하고 수 많은 핵무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2격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불리 선제공격을 할 수 없었으며 궁극적으로 양국의 핵무기 사용이 강하게 억제되어 왔다.[3] 이후 두 나라의 핵능력이 고도화 되자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압도적 재래식 전력 우세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의 공격을 흡수하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는 보다 안정적인 '확증 보복' 태세를 추구하였다. 인도는 1962년 10월 중국인도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는 군사력 증강만이 살 길이라고 확신한 계기가 됐다. 이에 더해 중국의 1964년 핵실험을 보면서 인도는 핵무기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인도는 1974년 5월 18일에 '미소짓는 붓다(Smiling Buddha)'라고 명명한 핵실험을 처음 진행했고 이를 '평화적인 핵폭발(Peaceful Nuclear Explosion)' 시험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이후 핵실험을 군사무기 형태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적국인 파키스탄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8년과 1989년에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인도는 간디(Rajiv Gandhi) 수상이 핵실험 통해 확인한 핵능력을 무기화하기로 결정했다. 핵무기를 현실화한 인도는 보복 중심의 핵전략을 구상해 2003년에 공식화했다. 1) 필요한 만큼의 핵탄두만 보유하고 2) 핵과 운반수단을 분리시키고, 3) 통제권을 중앙 집중하는 것이 인도 핵무기 작전 교리의 핵심이다. 선출된 민간 정치 지도자가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통제한다. 부품으로 나뉘어서 보관된 핵탄두는 수상 직속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조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시말해,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의 바탕에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과 상대의 1격에 생존해 낸 뒤 확실한 핵 보복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카르길 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상호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도 제한적 재래식 교전을 경험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처럼 핵 모호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위험한 핵 선제공격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재래식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재래식 전력의 우위와 타격을 당한 뒤에도 생존 가능한 핵전력을 바탕으로 핵 선제공격을 흡수한 뒤 파키스탄에 종말을 부르는 정도의 핵 보복과 재래식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식의 핵태세가 필요한 것이다. 핵무기 보유 선언을 선언한 뒤로는 재래식 전력이 상대에 비해 얼마나 우세한가라는 독립변수에 따라 '비대칭 확전'과 '확증보복'이라는 핵 태세로 종속변수가 구분된 것이다.

애초에 인도에게 군사적 위협은 중국과 파키스탄이었고 인도의 핵태세와 전략은 이 두 나라를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핵 무장을 공식화한 1998년 이후 인도의 핵 전략을 견고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파키스탄은 인도군이 국경을 넘으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999년 카르길 분쟁에서의 파키스탄은 패한데 이어 인도군이 콜드 스타트(cold start)를 표방한 전략을 폈다. 동시 다발적으로 파키스탄 영토내로 인도군이 투입해 전면전이 되기 전에 주요 지점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다. 이에 위기를 느낀 파키스탄은 상대인 인도군과 반대 전략을 펴게된 계기가 됐다. 민주국가인 인도는 핵무기 통제에 대한 권한을 선출된 민간이 합의를 통해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안정을 위해 1998년 1월 파키스탄에게 먼저 핵무기 선제불사용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거부하기도 했다.[4]

### III. 파키스탄의 핵전략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기본적으로 인도의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측면에서 가상 적국인 인도와 정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파키스탄은 1947년과 1965년 그리고 1971년의 세 차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열세를 절감하고 핵무기 개발에 첫 발을 떼었다. 파키스탄은 인도 국토 면적의 1/4 정도이다. 인구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국력은 국방비 사용 수준으로 이어져서 1971년 파키스탄은 인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말에 가서는 3배 이상으로 격차가 났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다. 파키스탄은 1955년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해서 1956년에는 과학자들로 만들어진 이른바 '파키스탄 원자력 위원회'를 창설했다. 이후 소련의 아프간 철수가 완료되자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던 미국이 1989년 이후 다시 문제를 삼았다. 여기에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격화되면서 파키스탄의 핵태세는 선행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브래스택스 훈련과 카르길 분쟁을 겪으면서 '최소억제' 기조와 다르게 핵을 운용했다. 핵무기를 방어적으로 운용한다는 표방과 달리 실제로는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선행적 확전 태세를 보였다.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분쟁과 1998년 인도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핵 위협에 급박성을 느끼게 되었음에 따라 이 태세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어 있지 않고 군부 등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더 공세적으로 만든다. 군부에 일부 권한이 있는 경우 국가 간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전적일 수 밖에 없는 군부가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군부는 전통적으로 군사적 옵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휘통제 절차와 전투작전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길 원하며, 대규모의 예방공격도 염두에 두는 편이다. 이 같은 조건은 파키스탄 군부가 중앙통제를 담당하는 정치 파트의 견제와 관계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며, 이는 언제나 선행적 확전 태세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가 인도보다 열세에 있는 점도 공세적인 핵태세를 취하는 이유에 속한다.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판단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선행적으로 확전 태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파키스탄은 적지만 확실한 핵무기 실험을 보여줬기에 가능했다. 국제사회가 의심스럽게 지켜본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핵실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입증하였다. 1998년 핵실험 이후 매년 약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제조하였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130~14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5]

#### IV. 북한의 핵전략 전망

사실상 오늘날 북한의 전략적 상황과 정확하게 합치되는 국가는 없다. 김일성이 1인자로 집권할 시기에 핵무장 정책을 고려한 동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핵위협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미국은 핵무기의 효용을 인식했고, 핵무기를 한국전쟁에서도

사용할지 고려하기도 했다. 특히 김일성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극도로 불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86년 6월 24일 로동신문을 통해 “남조선에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당시 일인자였던 김일성에 의해 1970년대 초쯤 시작됐다. 이는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와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공했던 현대식 무기가 줄고,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북한으로써는 군사비 지출 부담이 심화됐다. 북한은 남북 간 군사비 지출 차이가 커지고 남북한 간의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도 극복하기 위해 핵으로 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말해 북한은 핵무장으로 강한 역지력을 가져서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2년 미국은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하고 다음해에는 이라크를 침공하기까지 했다. 김정일 정권은 강경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을 몰아낸 것을 보면서 핵무장으로 물리적 억제력을 더욱 강하게 해나가야겠다는 교훈을 가졌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동맹을 유지해온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전력을 가져올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으로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적게나마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은 국방과학기술을 스스로의 힘으로 고도화시켜야만 했다. 김정일은 3년 단위로 추진해가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5년으로 늘려 정기화해서 과학기술역량을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2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기술까지 완성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김정은대에 이어서 선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소탄 실전 탄두의 폭발시험과 미국의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 2017년 11월에는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6] 훗날 김정은도 후계준비 과정에서 반테러 전쟁이라는 기조에 따라 미국이 군사를 개입해 대표적 반미 성향인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정권을 붕괴하는 것을 목도했다. 당시 리비아는 일정 부분 핵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핵무장을 포기하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주도하에 축출됐다. 이런 상황을 묵도한 김정은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루가 핵 억제력이라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러웠다.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적대정책을 펴는 동시에 핵위협을 한 것이 안보구상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핵 능력 완성을 통해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찍이 북한은 1950년 6·25전쟁뿐 아니라 그 뒤로 65년 넘게 지속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군사도발을 해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북한이 강도와 시기 면으로 볼 때 주변국의 예상울 훨씬 뛰어넘는 군사도발로 모험주의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기여했다. 2010년,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강도높은 위협감수 의지를 갖고 군사력을 쓰는 집단이란 인식을 대외적으로 심는데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북한은 핵전쟁까지 이르기 전 수준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재래식 전력의 있고, 특수전 부대나 장사정포, 또는 잠수정, 사이버 전력 등 여러 형태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개전 초기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기발생 초기에 핵무기를 쓸 경우 스스로 정권붕괴를 앞당기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량 재래식 전력이 핵무기 사용을 앞당긴다기보다 더 선택의 폭을 넓혀 제어한다거나 지연시키는 기능 또한 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게임은 한국과 미국만을 상대로하는 게임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가 동원된 게임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지역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지형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면 낙진이나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롯해 이로 인한 심리적 공포는 중국 내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 핵전쟁을 걱정할 것이므로 북한은 이 것을 축매로 하여 자신의 억제력을 높이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핵전쟁을 완충시킬 충분한 수단과 기제가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한계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입장에서 감당해야할 위협의 측정의 바로미터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다. 핵무기의 가용할 상상력으로 인한 공포심은 ‘선제적 사용

자’를 인류 공멸에 대한 윤리적 책임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엄청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확증보복 태세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의 경우가 취하는 핵태세이다. 북한은 겉으로 위협은 하지만 현 정권유지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 핵 사용 여부는 확증보복 태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선부른 핵사용은 국제사회의 공분과 비난을 초래해 국제적 정당성을 잃게 되고, 미국의 대량 핵공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7] 핵 지휘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법 4조에 나와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논리흐름에 따라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정권 보장에 있으므로 정권의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핵무기의 선행적 사용은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 비해서는 우세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핵자산이 우리 영토내 배치아닌 전략자산에 의존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핵능력이 열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핵전략이 보다 보수적으로 될 것이다. 아무리 북한 지도층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고해도 합리적 인식이 있을 경우 선행적 확전보다는 방어적인 응징적 보복 태세를 취할 요인이 많은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의 적대국으로 삼는 상대와의 비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핵 보유 국가의 적대국 비교치  
 Table 1. the comparison of nuclear adversaries

	인도	파키스탄	북한
재래식 무기	우세	열세	유사
2격 능력	우세	열세	열세
핵무기 능력	우세	열세	우세/열세
핵사용 결정 권한	선출 정치 권력	소수 군부	1인
핵태세	확증 보복	선제 위협	선제 위협 / 확증 보복

다만 대외적인 고립으로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핵능력 증가와 함께 지도층이 비합리적인 인식에 매몰된다면 공세적인 핵태세로 심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V. 결 론

제2차 핵시대의 지역 핵무장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저조했다. 연구 주제는 주로 핵무기의 개발 동기와 획득 과정으로 쏠렸다. 실제로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저조했다는 것이다. 핵 보유 국가들과 더불어 그 위협을 마주한 국가들에게 앞으로 더 영향을 주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보다는 핵전략이다. 이 연구는 제2차핵시대를 맞은 지역 핵무장 국가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른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핵태세 유형으로 비핀나랑의 유도, 보복, 선행적 확산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보복과 선행적 확산 태세를 두고 북한의 경우 어떤 핵전략을 취해갈지 가능해보았다. 다자화 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 끝에 수립한 핵전략은 상대국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핵전쟁을 억제하는데 성공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국력과 재래식 무기에서 앞서고 민주적인 핵무기 통제 시스템을 갖춘 인도는 선제로 1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핵 사용을 자제하고, 국력과 재래식에서 열세하고 호전적인 군부가 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은 언제든 1격을 할 수 있다는 태세로 1격을 맞지 않는 방법을 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볼 때 북한의 핵지휘통제 시스템은 김정운에게 집중돼 있는 점과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선행적 확산 태세를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점, 다수의 재래식 무기를 핵무기 사용 전단계의 대체제로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선행적 확산보다는 응징적 보복 태세를 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극단적으로는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선제적 공격시 정권 와해가 임박했다고 인식할 경우야 보복성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인으로 집중되는 지휘통제로 볼 때에도 합리적 인식을 전제로 할 때 북한은 응징적 보복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외적인 교류 단절로 자립이 가능하지 않을 때 지속적인 핵능력 증가와 함께 북한 지도층이 비합리적인 인식에 매몰돼 응징적 보복을 넘어서 선행적 확산 태세로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정권안보에 극도로 예민

한 점을 고려할 때 김정운이 정권교체 시도나 참수,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기습공격으로 오해하여 선제 핵공격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의 특수한 사례에 부합하는 결정요인이나 핵태세 유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References

- [1] Kim Tae Hyu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ctive Existential Deterrence," National strategy, Vol.22, No.3, pp. 5-36, 2016, <http://dx-doi-org.sproxy.dongguk.edu/10.35390/sejong.22.3.201609.001>
- [2] Kim Minsung, Rim, Hyun Ji, "Nuclear Strategy of Pakistan and North Korea: Vipin Narang's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and Its Limitation,"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31 No.1, pp. 107-141, 2022, <http://dx-doi-org.sproxy.dongguk.edu/10.33728/up.s.2022.31.1.004>
- [3] Kim Kil-Joon, "The Determinants of Nuclear Strategy for Regional Nuclear Powers- Focused on India and Pakistan," Korea Journal of Military Affairs, Vol.3, pp. 39-85, 2018, <http://dx-doi-org.sproxy.dongguk.edu/10.33528/kjma.2018.06.3.39>
- [4] Lee sunghoon, "A Study on Nuclear Strategy of Regional Nuclear St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62, No.4, pp. 299-334, 2019, <http://dx-doi-org.sproxy.dongguk.edu/10.23011/jnds.2019.62.4.011>
- [5] Kim Kil-Joon, "The Determinants of Nuclear Strategy for Regional Nuclear Powers- Focused on India and Pakistan," Vol.3, pp. 39-85, 2018, <http://dx-doi-org.sproxy.dongguk.edu/10.33528/kjma.2018.06.3.39>
- [6] Yang Uk, "North Korean Defense Reform: Strategic Strength through R&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4, pp. 209-217, 2020, 10.17703/JCCT.2020.6.4.209
- [7] Lee Keun Uk,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STRATEGIC STUDIES, Vol.25, No.1, pp. 263-277, 2018